오계 지키면 삼독심 소멸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6>

백년 보시 하루 계 지킴만 못해
개차법, 계율 자의적 해석 우려

오계는 모든 선법과 계의 근본이다. 불교의 계율은 오계에서 팔관재계, 사미십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비롯하여 범망보살 10중대계, 48경계 등 온갖 계법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계에 의지해 점차로 닦고 배워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모두 지키면서 청정하여 범함이 없으면 시라바라밀(尸羅波羅密)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고, 위없는 보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오계를 수지하면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성냄을 없애게 되는데 살생하는 죄는 진심(瞋心)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탐욕을 없애게 되는데 이는 탐심·탐욕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어리석음을 깨뜨리게 되는데 어리석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게으름을 없애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 모든 계를 쉽게 깨뜨리기 때문이다.

재물과 이성(異性)과 술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근본이다. 여기에 탐착하면 한 개인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위정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선생경』에 이르기를, "만약에 누가 오계를 지키지 않고도 생사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고 죽음의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서 지켜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오계는 단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몸을 닦고 도를 행하는 규약으로 삼는 것인데, 국가 경제나 민생의 문제 또는 세계 평화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구성원 각자의 수신(修身)에 있다. 닦은 후에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 오계를 지키는 것은 곧 몸을 닦는 것 — 가정을 다스리고 나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를 평화롭고 삶을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오계를 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네 가지 공양(음식, 의복, 와구, 탕약)을 백년 동안 보시를 하더라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나니, 계법은 정(情)과 비정(非情)의 온갖 경계에 두루 통용되기 때문이다." 하였다.

요즘 널리 행해지고 있는 좋은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오계를 주고 받는 수계산림인데, 수계산림이 겨우 며칠 동안만 행해지는 것은 무척 아쉽다. 그나마도 의식 의궤와 불공을 올리는 행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나머지 짧은 시간에 계법에 대해 강의할 뿐이다. 이런 실정이므로 수계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곧 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면 계를 받은 사람이나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더하게 되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은 죄에다 죄를 더하는 꼴이 되어도 참회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깨끗한 계를 받아 지키려는 이가 있어도 그 문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계를 지킴에 있어 우리 불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 '개차법(開遮法)'을 들 수 있겠다. 원래 '개'는 행위의 허가, '차'는 금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을 허락하는 것을 '개', 금하는 것을 '차'라고 하는데,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개차라고 하며 이것은 곧 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계초심학인문』에 "오계나 십계 등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계를 받으면 그 계에 있어서의 지범개차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5계와 10계를 받아서 잘 가지고, 범하고 트고 막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결국 개차법이란 계를 잘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계율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계하는 일을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으로 이해하여 초심자나 불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할 때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좋은(犯 또는 開), 죽게 될지라도 계율은 지켜야만 하는 것(持 또는 遮)"을 말하는 의미에서의 '개차법'은 다른 입장과 각도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우바새, 즉 재가의 신자가 받아 지녀야 할 5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불타가 깨달은 내용 일상에서 되찾아야"

법회중계

금화사 정초법회

〈2000년 2월 5일〉

대안스님
〈금화사 주지〉

주어진 일 최선 다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자연 사랑해야 참불자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먼 과거처럼 여겨지는 정보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우주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자연에 동화되어 함께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 깨달음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들 삶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물질만능으로 인해 각박해진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가장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 속에서 불자들은 무엇을 깨닫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텐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따라 긍정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신의 소임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소한 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삶의 작은 습관들이 생활 속에 깃들면 가족과 직장과 사회는 밝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즉 이기심을 버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사상으로 실천하면서 생활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 각자가 행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에서 모든 것은 출발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로 회통됩니다.

셋째,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땅을 뒤집어 파고 하늘로 무언가를 토해내는데, 자연인들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이변'이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깨달음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이로서, 아들 딸로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과 하나되어 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굳건히 자리잡을 때, 우리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인연으로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행복해진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던진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내면속에 자리잡은 불성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가능하면 모든 생활을 불교의식 속에서 실천에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훈이 되어야 하고, 이웃과 사회 직장에서의 활동도 바라밀의 실천으로서 생활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은 곧 부처님의 자비이고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는 곧 부처님의 품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정진해야 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인도 지배하며 불교연구 시작

세계의 불교학〈6〉 영국 ①

1925년이후 불교명상 수행 유행
1962년 런던에 첫 티벳사원 개원

◇도시빈민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인 불자들.

인도의 정신적 유산을 보호·연구하기 위한 영국 불교학자들의 노력은 일찍이 영국의 인도식민지배 때부터 시작됐다. 1889년 에드윈 아놀드(Edwin Anorld·1832~1904)는 그의 작품에서 부처님의 삶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영어권 세계에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동시대 위대한 시인이자 빨리경전학회(Pali Text Society)의 공동 설립자인 막스 뮬러는 1879년에 '불교경전(Scared Book of the Buddhists)'의 시리즈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빨리경전학회는 동양의 종교적 문헌을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이 참여했던 연구 단체로, 특히 이들 학자들은 영국에 불교철학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국에 첫 재가불자 나타난 것은 1905년경이다. 미얀마에서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J.R.페인과 R.J.잭슨이 가두설법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재가불자가 통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 불교서점을 열었으며, 1906년 '영국불교학회'를 창설했다. 아시아로부터 첫 불교 전파는 1908년 미얀마에서 온 영국 출신의 비구인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a) 스님과 3명의 미얀마인 재가불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수도 랭군에서 〈불교〉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영국의 불교학회를 통해 영국에 보급왔던 이들 네 사람은 당시 '불교서방포교단'으로 영국을 방문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주로 아힘사(Ahimsa·비폭력)의 윤리를 가진 테라바다 전통의 불교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불교가 무신론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종교인 국교의 박해는 없었다. 1923년까지 메테야 스님은 앞서 영국에 불교를 널리 알리기 시작한 R.J.페인과 함께 영국불교학회에서 〈불교평론〉을 발간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국불교학회는 해체되었고, 1924년 새롭게 재창립되었다. 새로운 불교학회는 런던대 마치스(A.C Marchs) 교수의 도움으로 〈영국불교(Buddhist in England)〉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대승불교 특히 일본 선불교에 대한 연구를 지면에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리랑카의 고승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Anagarika Dharmapala) 스님이 1925년 런던을 방문해, 영국 불교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바로 영국인 재가불자들 사이에 명상이 주요 수행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1925년부터 1943년까지 영국의 주요 도시에 명상 센터와 불교도서관이 들어섰다. 또 1925년에는 영국마하보디협회(Britisch Mahabodhi Society)가 설립됐고, 1926년에는 랜카터 게이트 지역에 불교 명상 센터가 개원됐다. 이어서 1928년에는 햄프스테드에 불교 사원이 설립됐고 1938년 런던에도 불교 사원이 세워졌다.

불교학회에서 발간했던 〈영국불교〉는 〈중도(The Middle Way)〉로 이름을 바꾸고 발행 부수를 늘렸다. 1934년에 처음으로 유럽불교인회의가 영국마하보디협회 주최로 런던에서 열렸다. 1930년대 중반에는 선에 관한 관심이 일어났고, 험프레이스의 일본여행보고서 〈동경을 거쳐(Via Tokyo)〉의 발간을 기점으로, 영국 불교는 테레바다 불교보다는 선불교로 관심의 축이 이동됐다. 마침내 1953년 스즈키(Daisetz T. Suzuki)의 방문으로, 영국인 불자들은 실참수행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다. 1959년 중공의 티벳 침공을 계기로 영국인 불자들은 티벳불교에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1962년에는 런던에 최초의 티벳사원이 개원되었다.

현재 영국불교는 테라바다불교, 대승불교, 티벳불교가 연합하여 하나의 불교 통합 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불교학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여러 종파들의 젊은 재가불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 특히 명상과 연구, 정신적 경험 등을 주제로 한 강의·토론·세미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의 불교는 방송 매체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불교 서적이 포켓판의 책으로 값싸게 나오고 있어 불교적 사유에 의한 영국 내 변화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불교학회가 발간한 1994년판 〈불교 종파 및 단체 목록(Buddhist Directory)〉에 의하면 91년보다 약 60개 단체가 증가한 약 270여개의 불교 단체와 센터가 영국과 아일랜드에 등록되었다. 영국 불교는 불교를 처음 접했던 1880년대 이후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여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불교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동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최신
사주임상록

여기 주역(周易)을 숫자로 풀이한 혼천작괘법(渾天作掛法)의 적중률(的中率)에 놀라지 말라!

周易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
周易作名法에 이어 펼쳐낸 세계 최초로 수학, 과학, 의학등을 철학에 접목시킨 四柱臨床錄이다.
딱딱한 四柱풀이라기 보다는 純粹한 우리들의 周邊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상 욱 지음
값 25,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작!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614-052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4821

혜총스님의 중노릇